

종합

‘서재필 박사 서거 60주년 추모제’

“규모 7 지진땀 원전 큰 일”

장비파손 영향 심각...김재균 “정부 안전주장 거짓”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지난 8일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내진설계기준을 초과하는 0.3g(대략 진도 7.0 규모) 지진이 발생할 경우 시설과 장비 파손으로 심각한 위험에 빠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낸 보도자료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지난해 수행한 ‘지구온난화 등 각종 위해 인자가 원전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비평가 연구’ 보고서 인용,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0.3g 지진이 발생하면 고리 3,4호기와 영광 1,2호기는 냉각수와 관련 시설인 ‘핵연료 재장전수 탱크’가 휘고, 월성 2,3,4호기

는 비상전원시스템의 구조와 기능이 파손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지진해일에 따른 여유고 조사에서는 올진 1.2호기 CWP(Cooling Water Pump, 냉각펌프의 일종)의 여유고가 -0.8m로 안전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10일 “규모 6.5의 갑질 이상에도 견딜 수 있다”고 주장하는 정부의 주장은 명백히 거짓”이라며 “정부는 더욱 강화된 안전 기준 수립과 적용을 위한 로드맵을 국가에 이전까지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방사능 측정장비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지식경제위 소속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이 이날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제논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는 한 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보유한 단 1대에 불과했다.

KINS는 원자력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이지만 이외에도 플루토늄 측정 장비는 4대, 요오드와 세슘 측정을 위한 감마핵종 분석시스템은 22대, 휴대용 감마핵종기는 3대만을 보유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방사능 측정 장비가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방사능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려면 고감도 방사능 측정장비를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수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박준영 전라남도지사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이호균 전라남도의회 의장 ▲임병규 전남도의회 의원 ▲정종해 보성군수 ▲선병진 보성군의회 의장 ▲서은석 달성서씨 종중 대표 ▲김중재 송재서재필 기념사업회 이사장

◇헌수자 명단 ▲이찬식 보성삼배대 대표 황금소나무 ▲최동수 하늘마을회 아웨나무 ▲이수만 (주)성문당 대표 향나무 ▲강희석 용안리 주민 광광나무 ▲김재원 귀족호두박물관 관장 귀족호두나무 ▲박석용 황철연구소장 황철나무 ▲김영조 충북 무형문화재 낙화정 청단풍나무 ▲김형우·김은영 광주 광산구 소촌동 참빗살 나무 ▲병천식 제일조경농원 대표 황철나무 ▲허윤경 메가디텍스 대표 꼬인 참나무 ▲윤곡리 보성군 문덕면 윤곡리 이단 사철나무 ▲임병수 문덕면 민회장 삼단 향나무 ▲하복구 천연염색문화재단 운영국장 목백일홍 ▲신순호 공작은그녀 대표 녹차나무(4년생 묘목 130주) ▲선보규 문덕면 윤곡리 주민 토종 동백나무 ▲박찬수 목야 박물관 관장 참나무 ▲이홍순 (주)삼흥포장공업 회장 은행나무 ▲최기용 개량 한옥 건축가 석류나무 ▲조경훈 문덕면 광천리 이장 금목서 ▲조용기 우암학원 설립자 굵은목 백일홍 ▲오석삼 왕인 전통 종이 공예관 관장 꽃사과 ▲선병국 전 보성 향교 전교 소나무 ▲박원식 목연서각연구소 소장 홍가시나무 ▲서지훈 화순군 남면 청단풍 ▲문상호 광주무형문화재4호 필자 은목서 ▲이상호 서재필선생 의중증손 목백일홍 ▲계심현인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누운 때죽나무 ▲황시인·김은실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참빗살나무 ▲임훈 보성군 문덕면 덕치리 이장 청단풍(발효퇴비 100포) ▲윤영창 입급카타온 대표 금목서 ▲정연한 국민조정 대표 삼지닥나무 5주 ▲이남섭 서재필선생 의중증손 목 백일홍 ▲이근섭 서재필선생 의중증손 목 백일홍 ▲함관공 문중 성주이씨 벽오동 ▲장금식 진성공예사 대표 은목서 ▲정공기 무안중학교 교장 2단향나무 ▲조종렬 보성군 문덕면 용안리 용안2구 이장 비자나무 ▲김성찬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향나무 ▲김성숙 하늘마을 김성숙 전통고추장 향나무 ▲이근 주안호감시당장 소나무 ▲최형권 보성군 문덕면 양동리 참빗살나무 ▲문광열 보성군 문덕면 윤곡리 참빗살나무 ▲정찬주 소설가 모과나무 ▲김광수 경기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단 향나무 ▲염동용 보성군 문덕면 윤곡리 탕자나무노목 ▲황정석 문덕면 방범대장 때죽나무 연리목 ▲안천순 시인 향나무 2주 ▲한상봉 중요무형문화재 제 60호 장도장 조교 은목서 ▲임병구 보성군 북내면 화살나무 ▲염남호·최경심 문덕청년회장 은목서 ▲김경술·엘렌 청년회 총무 해송 2주 ▲김재선 보성군 문덕면 금광장 대표 백일백 ▲이종욱 (주)성문당 전무 대표목 ▲신경식 광주대학교 겸임교수 사철나무 ▲김재호 광주무학초등학교 교장·서재가 흥가시나무 ▲조안의 서울 은평구 응암동 향나무 ▲공병환 보성군 문덕면 용안리 꽃사과 ▲강경순 서재필기념관 직원 은목서 ▲김응준·이나미 경남 남해군 고현면 포성리 황금반송



‘송재 서재필 박사 60주년 추모제’가 지난 8일 보성군 서재필기념공원에서 열렸다. 서재필기념사업회와 광주일보가 공동 주관한 추모제에는 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 김중재 이사장,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보성=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선생 뜻 따라 더 나은 조국 만들자”

이명박 대통령도 조화 보내

평생 조국의 자주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송재 서재필(1864~1951년) 선생 60주년 추모식이 8일 오전 11시 보성군 서재필기념공원에서 봉헌됐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이사장 김중재)와 광주일보사 주최로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 정종해 보성군수, 박재순 한나라당 전 최고위원, 장성민 전 국회의원, 기념사업회 임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중현 광주지방보훈청장은 추모사를 통해 “이역만리 떨어진 미국에서조차 나라를 걱정하는 서재필

선생은 겨레사랑의 표본이자 항일독립운동사에 찬연한 업적을 남긴 진정한 독립운동가였다”며 “송재 선생께서 가르친 길을 따라 우리 민족도 한데 마음을 모으고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모식이 끝난 뒤에는 서거 60주년을 기념, 각지로 부터 헌수 받은 나무 60수를 공원에 식재하는 행사도 열렸다. 이명박 대통령도 조화를 보내 서재필 선생의 서거 60주년을 추모했다.

(사)송재서재필기념사업회는 지난 1991년 광주일보사와 뜻있는 지역인사들을 중심으로 창립됐다. /동통기자 exian@kwangju.co.kr

“원전내 폐연료봉 저장 2024년까지 연장 검토”

원전당국, 안전성 재점검 착수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폐연료봉을 지금보다 촘촘히 저장해 원전 내 폐연료봉 포화시점을 당초보다 8년 늘린 2024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10일 국회 지식경제위 한나라당 김재균 의원에게 제출한 ‘사용 후 핵연료

관리대안 수립 및 로드맵 개발’ 연구용역 관련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의 폐연료봉 관리 공론화 일환으로 한국원자력학회컨소시엄이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행한 연구용역 보고에 따르면 원전 내 폐기물 포화시점을 당초 2016년에서 2024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고서는 “임시저장수조 저장시설 개선, 건식저장시설 추가설치와 함께 원전

내에서 발전소 내 다른 부지로 폐연료봉을 이송하면 원전 내 임시저장 포화시점을 최소 202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우 원전별 포화시점은 ▲영광 원전 2021년~2024년 ▲고리원전 2016년~2029년 ▲울진원전 2018년~2029년 ▲월성원전 2017년~2026년으로 각각 연장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北 “금강산 관광 현대 독점권 취소”

북한 대남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는 8일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아태평화위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담화에서 “이제 더는 금강산 관광이 재개될 가망도 없다”며 “우리는 현대 측과 맺은 금강산 관광에 관한 합의서에서 현대 측에 준 독점권에 관한 조항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북측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우리가 말아야 할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고, 남측 지역을 통한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아 한다”고 말했다.

아태평화위 측은 금강산 사무소를 통해 이런 내용이 담긴 문건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현대 측은 이를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현대아시아는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북측과 맺은 모든 합의는 어느 일방의 통보로 취소되거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닌 만큼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북한의 일방적인 (독점권 취소) 조치는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도 “북한의 조치는 국제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필뉴스

광주 방사능 비...요오드·세슘 검출

지난 7일 광주를 비롯해 전국에 내린 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비롯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성 요오드(I-131)가 나왔다. 광주와 제주·부산·군산·대전 등 5곳에서는 0.254~0.978Bq/l의 세슘도 나왔다. 공기중에서도 방사성 요오드와 세슘이 잇따라 검출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8일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공기 중 방사성 물질을 검사한 결과,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요오드의 방사선량은 0.580~1.45mBq/m로 인체에 거의 영향이 없는 수준이다.

방사성 세슘(Cs-137, Cs-134)도 12개 측정소에서 모두 발견됐다. 강릉을 제외한 11개 측정소에서 지난 7일 오전 10시에 모은 빗물에서도 방사성 요오드가 예외없이 발견됐다. 농도는 0.763~2.81Bq/l 범위였다. 제주·부산·광주·군산·대전 등 5곳에서는 0.254~0.978Bq/l의 세슘도 나왔다.

KINS는 10일에도 전국 12개 지방측정소에서 지난 8일 오전 10시부터 9일 오전 10시까지 공기를 모아 방사성 물질을 조사한 결과, 광주를 비롯한 모든 지역에서 방사성 요오드(I-131)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양수현기자 yang@

서재필선생 서거 60년 추모 헌시

손 광은 (시인·문학박사·전남대 명예교수)

봉건조국 개혁의 봉화깃발 높이 높이 든 남이여, 이 땅에 세월이 흐를수록 아직도 새롭게 조국과 민족을 더욱 일깨워주는 애국자여, 민족자결의 꿈 뿌리내린 선각자여, 수구타과 혁명의 봉화를 아직도 활활 타게 밀붙여, 대낮에 촛불 켜고, 우리를 가슴속에 새겨서 불꽃 치밀이 솟아 오늘 경건한 마음 고개 숙이고 엄숙하게 선생의 일생 추모합니다.

개혁의 선구자여, 국가와 민족을 만방에 빛낸 민족의 아버지여, 겨레의 눈 깨우기 위해 최초의 한글신문 「독립신문」 발간하여 개화 계몽 의식을 펼친 선구자여, 칼보다 무서운 붓으로 독립사상 고취한 최초의 언론인이여, 갑신정변 실패로 조국은 끝날때 님을 눈물 흘리

게 했지만 국가를 위한 형극의 길, 가시밭길 망명지에서 조국을 위해, 세계를 향해 자주독립국가 통일을 외친 사자후...

민족이 나아갈 길 밝힌 빛, 높이 올린 독립운동가여, 조국의 자주독립 민주를 위해 헌신한 남이여, 최초로 서양의학 최초의 언론인으로 빛나는 업적, 세계화된 최초의 위인 우뚝 서서 빛이 된 영웅이여, 고국에 대한 연민과 열정 남부 분단을 통일로 이루지 못한 한을 품고 가신 남이여, 87세로 서거하시니 애송합니다. 쓸쓸하게 외국묘지에 모셨기에 님의 자주독립혼을 기릴 현창사업을 해놓고 조국의 품안으로 유해를 국내로 모셔 국립묘지에 안장하고, 정성드려 오늘 탄생 147주년 서거 60주년을 즈음하여 애국자이신 선각자 정신을 추모하오니 암울한 조국 변혁의 일이 되소서, 세계적인 소통의 운변가, 혁명가, 민족의 아버지여, 나라의 일이 되소서, 나라의 힘이 되소서.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가격에 사세요!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고객지원팀)